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y of Family Child Care

조 선 영**

Joe, Sun Young

이 영***

Lee,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child care. The status of family child care was explored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program quality, and child behavior. The subjects were 17 family child care and their 102 children and 60 parents.

Harms & Clifford's (1989) FDCRS(Family Day Care Rating Scale) was used to measure program quality. Child behavior was recorded by time sampling in two 30 min observations during the free play session in each facility. A questionnaire for caregiver and parents was used to investigat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y, percentage, and Pearson's r.

Results showed that (1) a wide range of variable accounted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child care, (2) the level of program quality as rated by the FDCRS was below mid-point, (3) children engaged in solitary behavior much more than in peer interactions or caregiver-child interactions.

I. 서 론

아동양육에 관한 논쟁 중에서 현대 산업 사회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양육을 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취업모의 증가와 핵가족화추세,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양육의 대행과 조기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탁아(day care)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탁아수요에 대한 전국적 규모로 실시된 한 연구(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에 의하면, 현재 탁아수요 인구는 0~5세 전체 아동의 68.92%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현 탁아시설의 공급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사회계층 및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숙

* 본 논문은 1991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연구조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자, 1990; 이영, 1989).

이와 같이 탁아에 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이 부족하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취업모의 요구에 따라 자생적으로 '놀이방'이란 명칭으로 가정탁아 유형의 보육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가정탁아(family day care 또는 home care)란 아동이 부모가 아닌 성인의 집에서 제공받는 탁아 유형이다(Morrison, 1980).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가정탁아(family day care)를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1991)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행 관련법규(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은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각 구청별로 1991년 7월까지 신고된 가정탁아의 수는 총 860개소이며, 727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감안해 볼 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운영되고 있으리라 추산된다(조부경, 1991). 또한 탁아사업 추진계획(보건사회부, 1990)에 의하면 '95년도까지 가정보육시설 25,700개소를 설치, 유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탁아모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회기관이 늘고 있으므로, 가정보육시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정탁아는 아동의 집과 근접해 있으므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탁아담당자는 아동의 부모와 유사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을 가진 친근한 이웃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탁아보다 상호 교류가 용이하며, 아동의 연령 및 이용시간에서 융통성이 있으며, 특별한 양육이 요구되는 아동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부모에게 선호되는 형태이다(조부경, 1991; Clarke-Stewart, 1982).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며 혼합연령 집단 및 탁아담당자의 가족(성인 남자, 형제 자매, 조부모 등)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기관탁아보다는 개별적인 양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영, 1990; 이재연, 1989; Clarke-Stewart & Gruber, 1984).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개별적인 보육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보육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김정자, 임선희, 1984; 유명주, 1982; Harms & Clifford, 1989; Kadushin, 1980). 또한 가정탁아는 기존의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하므로 시설투자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미취업 여성 탁아담당자로 훈련시킴으로써 여성 유숙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김정자, 임선희, 1984; 유명주, 1982), 급증하는 탁아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탁아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정탁아가 가지는 문제점은, 비공식적인 기관이므로 질적 수준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탁아담당자의 전문적 훈련이 부족하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제한된 실내공간인 경우가 많고 교육환경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과 건강 및 영양관리가 기관탁아보다 소홀하기 쉽고, 일관성이 없는 보호와 교육은 특히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탁아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안정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영, 1990; 이재연, 1989; 조부경, 1991; Clarke-Stewart, 1982).

한편, 탁아에 대한 요구는 초기에는 단순히 복지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육적 측면도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으며(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1986),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복합적인 특성이 강

조되고 있다(이영, 1990). 따라서 급증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양적인 확충에만 주력하는 것은 탁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돋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1990;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 연구회·한국아동학회, 1989; 한국여성개발원, 1989). 영유아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의 중요성은 많은 발달이론 및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Kadushin, 1980), 아동발달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탁아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영, 김미령, 1990; 이영자, 1990; Fein & Fox, 1988; Schwarz, 1983). 따라서 탁아시설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탁아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탁아의 질적인 향상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탁아시설의 질(quality)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indices)로서 탁아담당자와 아동에 관한 사항인 인적환경이 우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즉 탁아담당자의 연령·학력·경력 및 훈련정도, 탁아담당자의 안정성, 보육아동의 연령 및 성별, 집단크기, 탁아담당자와 아동의 비율 등과 같은 구조적 변인이 탁아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았다(김영옥, 1991; Belsky, 1984).

또한 탁아시설의 인적환경 뿐만 아니라 탁아시설의 물리적 환경도 탁아시설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고찰되었다(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8; Smith & Jaworski, 1984; Vandell, Henderson & Wilson, 1988).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자유놀이를 관찰한 Vandell과 그의 동료들(1988)은 탁아의 질을 탁아담당자의 훈련, 성인과 아동의 비율 등의 인적환경과 자료, 규모가 작은 교실 등의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질적으로 우수한 탁아기관에서 아동은 4세 및 8세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하였다.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은 탁아의 질을 집단크기, 탁아담당자-아동비율, 탁아담당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 물리적 공간배열, 환경의 공간성, 놀이자료의 적절성과 다양성, 실외공간의 질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탁아의 질에 따라 아동의 자유놀이행동과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탁아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 할 때, 아동은 보다 친사회적이었다. 공간이 적절하고 탁아담당자와 아동의 비율이 낮으면, 아동은 집중적인 혼자놀이를 많이 하였고 관찰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탁아시설에서의 아동의 일상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찰과 관찰에 기초한 평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Fuqua, 1984; McCartney et al., 1982). 또한 직접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탁아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관찰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Endsley & Bradbard, 1981; Harms & Clifford, 1980, 1989; NAEYC, 1984).

Endsley와 Bradbard(1981)는 건강과 안전, 물리적 공간과 교육활동, 성인-아동-또래 상호작용, 가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기관 및 가정탁아시설을 살펴보기 위한 관찰 목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시설에서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많고, 놀이에 열심히 참여하며, 유아와 유아, 탁아담당자와 유아의 관계는 애정과 존중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Harms와 Clifford(1989)는 가정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을 관찰하여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양육공간 및 설비, 기본양육, 언어와 추론, 학습활동, 사회성발달, 교사, 부모의 측면에

서 Family Day Care Rating Scale(FDCRS)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가정탁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계획성, 개별적인 양육과 물리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가정탁아시설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탁아 보교육 수료생(한국여성개발원, 1986)과 탁아보 교육 수료생이 운영하는 가정탁아시설의 이용자(이진주, 1988) 등을 대상으로 주로 운영시간, 비용, 아동 수, 교직원의 연령, 경력 및 학력, 이용자의 사회인구론적 배경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유희정(1991)의 연구에서는 탁아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가정탁아의 운영실태 및 탁아모변인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는 탁아담당자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존한 연구로서, 아직까지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관해 객관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탁아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해 주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대리적 양육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들의 질적인 수준과 특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탁아시설의 특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정척도와 시설에서의 아동 행동에 대한 직접관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시설에서의 아동행동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가정보육시설 17개소와 이 시설에 다니는 아동 102명 및 이

들의 부모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시설은 3개월 이상 운영되어 온 시설로서, 3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곳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각 시설에서 탁아경험이 2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보육시설 평정척도, 아동 행동 관찰기록표, 탁아담당자 및 부모용 설문지 등을 사용하였다.

1) 가정보육시설 평정척도(FDCRS)

각 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정하기 위하여 Harms 와 Clifford(1989)가 개발한 Family Day Care Rating Scale(가정보육시설 평정척도)을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DCRS는 가정탁아의 복합적인 질적 수준을 7점척도로 평정하는 것으로, 6개 범주에 속하는 하위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부적절, 기본적, 적절, 최상의 수준에 대해 조작적 정의가 기술되어 있으며 영아부터 취학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3개 항목을 제외하므로 총 32개 항목에 대해 평정한다. 6개 범주는 기본공간 및 설비, 기본양육, 언어와 추론, 학습활동, 사회성 발달, 탁아담당자 및 부모이며, Howes와 Stewart(1987)가 보고한 각 범주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은 .70-.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회의 예비조사를 거쳐 가정보육시설 평정척도(FDCRS)에 대한 평정-재평정 신뢰도를 산출해 본 결과, 구성요소별로 .80-.97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91이었다.

2) 아동의 행동 관찰기록표

각 시설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고안한 관찰기록표를, 3회의 예비관찰을 통하여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 개별행동의 3개 범주, 11개 항목에 아동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범주별로 .84-.95였으며, 전체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94였다.

3) 설문지

탁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였다. 탁아담당자용 설문지는 가정보육시설의 일반적인 사항 및 프로그램 내용, 탁아담당자에 관하여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용 설문지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의 인구론적 배경과 만족도 및 도움정도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도구의 적합성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보육시설 평정척도는 항목의 수준별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관찰목록표에 대한 평정척도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아동행동 관찰기록표는 항목의 일부가 통합되거나 보충되었으며, 관찰 시간간격 및 회수가 조정되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91년 9월 10일부터 10월 5일 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각 가정보육시설을 오전 또는 오후에 1회씩 총 2회 직접 방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사되었다.

① 면접 및 설문지 배부

1회 방문시에 먼저 탁아담당자와의 면접 및 가정통신 등의 유인물 수집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5분-45분이 소요되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탁아담당자를 통하여 부모에게 설문지가 배부, 회수되었다. 총 102부를 배부하였으나, 7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8.6%였다. 이 중에서 누락사항이 있는 10부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총 60부였다.

② 관찰

면접 후에 “아동들이 놀이방에서 지내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탁아담당자에게 설명 후에, 놀이방의 자유놀이상황을 관찰하였다. 관찰시간은 20초 관찰 후 10초기록을 1회로 하여 한 아동을 6회씩 연속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아동의 관찰순서는 무선적으로 하였다. 각 시설마다 총 120회를 관찰하였는데, 1차와 2차 방문시 즉 오전과 오후에 60회씩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평정

2차 관찰을 모두 마친 후에 각 시설에 대한 평정척도에 의한 평정이 이루어졌다. 2회의 방문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Harms와 Clifford(1989)가 제언한 대로 탁아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가정보육시설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는 변인과 부모의 인구론적 배경과 이용현황은 각 응답 내용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유형을 관찰한 결과는 가정보육시설별로 각 범주 및 항목별 관찰빈도의 합을 원점수로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평정점수는 각 6개 구성요소별로 평균을 산출한 후 이를 6개 구성요소의 평균을 구하여 각 시설의 질적수

준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가능한 범위는 1.00—7.00점이다.

III. 연구결과

1. 가정보육시설의 일반적 배경

먼저 연구대상 시설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1〉—〈표 1-6〉과 같다. 가정보육시설의 운영현황은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가정보육시설의 운영현황

변 인	구 分	빈도(%)
운 영	반 일 제	1(5.9)
형 태	종일제와 반일제 혼합	11(64.7)
	종 일 제	5(29.4)
운 영	1 년 미 만	5(29.4)
경 력	1년이상—2년미만	10(58.8)
	2 년 이 상	2(11.8)
탁아담당자	1 명	8(47.1)
수	2 명	7(41.2)
	3 명	2(11.8)
탁아 보조	없 다	1(5.9)
정도	있다(일정하지 않음)	8(47.1)
	있다(일정함)	8(47.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은 종일제와 반일제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한 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탁아를 담당하는 사람은 1명인 경우와 보조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주담당자 이외에 양육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일정한 경우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다.

〈표 1-2〉에서 주탁아담당자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 탁아담당자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

업한 후 탁아모 교육을 받은 30대 주부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놀이방 경력을 포함하여 3년 이하의 사전 보육관련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1-2〉 주탁아담당자의 배경

변 인	구 分	빈도(%)
	20 세 — 29 세	3(17.6)
연 령	30 세 — 39 세	8(47.1)
	40 세 — 49 세	3(17.6)
	50 세 — 59 세	3(17.6)
	고졸 및 중퇴	7(41.2)
학 력	전문대졸 및 중퇴	6(35.3)
	대학 및 중퇴	4(23.5)
	탁아모 교육수료	11(64.7)
경 력	관련학과 졸업	2(11.8)
	관련학과 졸업후, 탁아모교육	3(17.6)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	1(5.9)
	1 년 이 하	2(11.8)
사전보육	1 년 — 3 년	8(47.0)
관련경력	4 년 — 9 년	5(29.4)
	10 년 이 상	2(11.8)

〈표 1-3〉을 보면, 탁아보조자는 20대의 전문대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미혼자인 경우가 많았고, 60, 70대의 친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보육시설의 인적구성은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탁아담당자 일인당 아동의 수는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58.8%), 아동의 연령범위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3〉 탁아보조자의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
연 령	20 세 - 29 세	10(62.5)
	30 세 - 39 세	2(12.5)
	40 세 - 49 세	1(6.2)
	50 세 이 상	3(18.8)
국 졸 및 중 졸		3(18.8)
학 력	고 졸	1(6.2)
	전문대 졸 및 재 학	9(56.2)
	대 졸 및 중 퇴	3(18.8)
탁아모 교육수료		3(18.8)
자 격	관련학과 졸업	6(37.5)
	유치원교사 자격소지	1(6.2)
	무	6(37.5)
사전보육	1 년 미 만	11(68.8)
관련경력	1년이상-2년미만	5(31.2)

〈표 1-4〉 시설의 인적구성

변 인	구 분	빈도 (%)
아동수	5 명 이 하	4(23.5)
	6 명 - 10 명	7(41.2)
	11 명 - 15 명	4(23.5)
	16 명 - 20 명	2(11.8)
탁아담당자	1:5 이 하	7(41.2)
: 아동수	1:5 초 과	10(58.8)
아동의	남 아 < 여 아	7(41.2)
성별구성	남 아 = 여 아	2(11.8)
	남 아 > 여 아	8(47.0)
보육아동	0세 이상-2세 이하	5(29.4)
연령범위	3세 이상-6세 이하	0(0.0)
	0세 이상-6세 이하	12(70.6)

〈표 1-5〉를 살펴보면 월보육비는 탁아 시간과 아동의 연령, 경제적인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4만

2천원에서 24만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표 1-5〉 월 보육비

변 인	구 分	빈도 (%)
(영어)	10만원 - 14만원	4(30.8)
	15만원 - 19만원	6(46.2)
	20만원 - 24만원	3(23.0)
(유아)	5만원 - 9만원	1(6.2)
	10만원 - 14만원	5(31.3)
	15만원 - 19만원	9(56.3)
반일제	20만원 - 24만원	1(6.2)
	4.2만원 - 5.6만원	6(50.0)
	5.7만원 - 7.0만원	6(50.0)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일인당 활용면적은 1평이상 2평미만인 경우가 많았고 실외놀이 공간을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가 58.8%로 조금 많았다.

〈표 1-6〉 시설규모

변 인	구 分	빈도 (%)
실내	12평 이하	4(23.5)
	13평 - 24평	9(52.9)
	25평 - 34평	4(23.5)
활용면적	실 유	10(58.8)
	외 무	7(41.2)
아동일인당	1.00평 미만	1(5.9)
실내면적	1.00-2.00평	9(52.9)
	2.00평 이상	7(41.2)

이상과 같이 서울시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일반적인 배경을 운영현황, 주탁아담당자 및 탁아보조자의 배경, 인적구성, 월 보육비, 시설규모

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시설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은 대체로 종일제와 반일제를 혼합하여, 1명 또는 2명의 탁아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주 탁아담당자는 고졸 혹은 전문대졸 이후 탁아모 교육을 받은 30 대 주부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혼합연령인 경우가 많았으며, 탁아담당자수와 아동수의 비율은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보육시설의 월 보육비는 아동의 연령, 보육시간 등에 따라 4만 2천원~24만원으로 차이가 많았다. 가정보육 시설에서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일인당 1평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8.8%가 실외놀이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FDCRS에 의해 평정하고, 아동행동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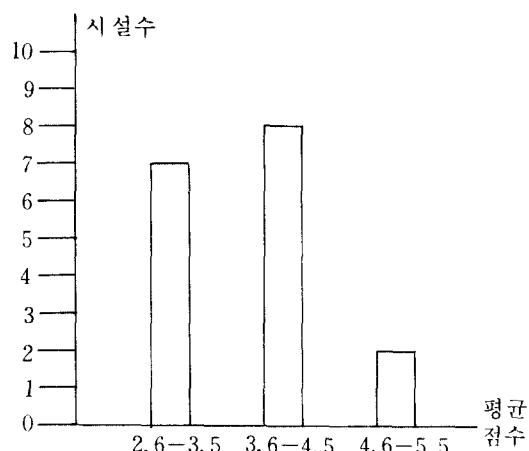
1) FDCRS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평정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정한 결과를 구성요소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전체적인 평정의 평균점수는

3.78로 중간(4점)보다 약간 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 2.96~5.19로 평정되었다. 구성요소별로는 「탁아담당자, 부모」요소가 4.0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기본공간 및 설비」가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본양육」 및 「언어와 추론」, 「학습활동」, 「사회성 발달」은 3.69~3.87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보통수준이었다. 한편, 상위 수준인 3개 요소의 시설별 편차가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 시설의 총 평균점수의 분포를 쪐저, 보통, 적절한 수준으로 나누어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표 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의한 FDCRS 평점점수 결과(N=17)

구 성 요 소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기본공간 및 설비	3.41	.65	2.33~4.83
기 본 양 육	3.87	.97	2.71~5.57
언 어 와 추 론	3.87	.84	2.50~5.50
학 습 활 동	3.84	.51	2.89~4.56
사 회 성 발 탈	3.69	.68	2.67~5.00
탁아담당자 및 부모	4.04	.88	3.00~6.00
전 체	3.78	.66	2.96~5.19

〈그림 1〉을 보면, 최저수준인 3.0을 중심으로 7개소(41.2%), 8개소(47.1%)는 보통수준(4.0), 나머지 2개소(11.8%)는 적절한 수준(5.0)인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아동의 행동

〈표 3〉 가정보육시설에서 관찰된 아동행동의 범주별 비율(N=17)

범 주	비율(%)	시설간 범위	하 위 항 목	비율(%)	시설간 범위
또래와의 상호작용	20.8	10.00~47.00	친사회적 행동	74.8	4.00~40.00
			부정적 행동	25.2	0.00~21.00
탁아담당 자와의 상호작용	23.0	7.00~47.00	탁아담당자와의 놀이, 활동	63.0	3.00~33.00
			탁아담당자의 칭찬, 훈육	19.0	0.00~10.00
			기본 생활 관리	11.0	0.00~7.00
			기 타	7.0	0.00~11.00
개별행동	56.2	49.00~83.00	혼자 놀이	51.4	21.00~57.00
			탁아담당자, 친구 관찰	32.2	5.00~33.00
			공상, 활동영역방황	11.8	3.00~14.00
			기 본 생 활	3.7	0.00~7.00
			기 타	0.9	0.00~5.00
전 체	100.0	120.1~120.0	소 계	100.0	120.0~120.0

〈표 3〉을 보면 17개 시설 전체에서 아동이 보여 준 행동의 범주별 비율에서는 「개별행동」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각 범주별로 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74.8%로 「부정적 행동」(25.2%)보다 많았고,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에서는 「탁아담당자와의 놀이 및 활동」(63.0%)이 가장 많았으며, 개별행동에서는 「혼자놀이」(51.4%)가 가장 많았고, 「탁아담당자나 친구를 관찰」(32.2%)하는 행동이 두번째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설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을 또래 및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과 개별행동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았다.

많았다.

한편 평정척도에 의한 질적 수준과 아동의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가정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은 아동과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빈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기본양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과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이 많았고, 탁아담당자 및 부모 요소가 좋을수록 아동과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이 많았으며, 전체적인 질적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과 탁아담당자와의 상호작용이 많았다.

〈표 4〉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아동행동간의 상관관계(N=17)

질적수준	아동행동	또래와 상호작용	탁아담당자와 상호작용	개별행동
기본공간 및 설비	.09	.11	-.37	
기본 양육	-.44	.62**	-.23	
언어와 추론	-.16	.39	-.33	
학습활동	-.14	.30	-.33	
사회성발달	-.23	.44	-.23	
탁아담당자 및 부모	-.35	.61**	-.32	
전체	-.26	.50 *	-.41	

* p<.05 ** p <.01

〈표 5〉 부모의 인구론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부모의	〈부〉 〈모〉	
직업	무직	1(1.7) 11(18.3)
	비숙련직	1(1.7) 0(0.0)
	숙련직	3(5.2) 8(13.3)
	판매, 서비스직	8(13.8) 12(20.0)
	사무직	37(63.8) 24(40.0)
	관리직	0(0.0) 0(0.0)
	전문직	8(13.8) 5(8.3)
부모의	〈부〉 〈모〉	
학력	종졸	2(3.4) 4(6.7)
	고졸	13(22.4) 26(43.3)
	전문대졸	0(0.0) 1(1.7)
	대학졸	34(58.6) 26(43.3)
	대학원졸	9(15.5) 3(5.0)
가족	2명-4명	50(83.3)
크기	5명-7명	10(16.7)
월평균	100만원 이하	19(31.7)
소득	110만원-200만원	34(56.6)
	210만원-300만원	5(8.4)
	310만원-400만원	2(3.3)

3. 가정보육시설 이용 현황

1) 가정보육시설 이용자의 인구론적 배경

가정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의 인구론적 배경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이 된 가정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업주부의 자녀도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반일제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가족구성원의 수가 4명이하인 핵가족이 대부분으로 어머니가 취업할 경우 자녀양육을 맡아 줄 수 있는 친·인척이 가정내에 없는 가족이 가정보육시설에 의존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10만원-2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6〉에서 보면,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9개월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73%). 이용시간은 6시간 30분에서 10시간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8%), 13시간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

〈표 6〉 가정보육시설 이용 현황

변 인	구 분	빈도 (%)
이용 경력	2개월~9개월	44(73.3)
	10개월~19개월	12(20.0)
	20개월~29개월	4(6.7)
이용시간	2.5시간~6.0시간	17(28.3)
	6.5시간~10.0시간	29(48.4)
	10.5시간~13.0시간	14(23.3)
이전에	어머니 이외 없음	25(41.7)
경험한	타인 1명	20(33.3)
양육자	2명	9(15.0)
수	3명	5(8.3)
	4명	1(1.7)
타인양육	0개월~1세미만	26(43.3)
시작시기	1세이상~2세미만	9(15.0)
	2세이상~3세미만	15(25.0)
	3세이상~4세미만	8(13.4)
	4세이상~	2(3.3)
가정보육	0개월~1세미만	3(5.0)
시설이용	1세이상~2세미만	14(23.3)
시작시기	2세이상~3세미만	25(41.7)
	3세이상~4세미만	13(21.7)
	4세이상~	6(8.3)

았으며(23%), 6시간 미만, 즉 반일제로 이용하는 경우도 28%나 되었다. 가정보육시설에 오기 이전의 주양육자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한 경우는 42%였으며, 타인양육을 한 경우 3~4명이었던 경우까지 있었다. 이때 타인은 아동의 할머니, 친척, 동네아주머니, 파출부 등으로 다양했으며 다른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옮겨온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닌 타인이 양육을 시작한 시기는 1세 미만부터 시작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43%),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2세부터인 경우가 많았지만(42%), 1세 미만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가정보육시설 17개소와 아동 102명, 부모 60명을 대상으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일반적 배경, 질적 수준, 아동 행동, 이용현황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고 이에 대해 해석,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개 가정보육시설은 시설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수준도 다양했다. 가정보육시설은 대체로 종일제와 반일제를 혼합하여, 1명 또는 2명의 탁아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주 탁아담당자는 고졸 혹은 전문대졸 이후 탁아모 교육을 받은 30대 주부인 경우가 많았으며, 탁아담당자수와 아동수의 비율은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보육시설의 월 보육비는 아동의 연령, 보육시간 등에 따라 4만 2천 원~24만 원으로 차이가 많았다. 가정보육시설에서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일인당 1평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8.8%가 실외놀이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정보육시설의 일반적 배경에 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탁아에 관한 법령 및 연구에서 특히 쟁점이 되어온 사항은 탁아담당자의 학력 및 자격과 아동의 수, 아동의 연령이다. 그런데 본 조사 결과, 탁아담당자는 고졸, 전문대졸(비관련학과)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주로 탁아모 교육만을 받은 후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에 정비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탁아

담당자의 공급이 수요를 따를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청된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비전공자를 수용하여 탁아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탁아담당자의 훈련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탁아의 경우 방문훈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mburg, 1989).

탁아담당자 수와 아동수의 비율을 살펴볼 때, 탁아담당자 1인당 아동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58.8%) 이는 영아를 포함한 아동수이다. 탁아담당자 1인당 아동수에 대한 견해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나 Fowler(1980)는 유아의 경우에 1:5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재연(1990)은 최대한 6명이하 이여야 한다고 한다. 최근 제정된 법령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의 탁아담당자 수를 영아는 5명당 탁아담당자 1명이며, 영아 3명이 추가될 경우마다 탁아담당자도 1명씩 더 있어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경우는 탁아담당자 1명만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1991).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영아와 유아를 혼합하여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의 기준, 즉 탁아담당자 1명이 아동 5명을 보육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58.8%가 탁아담당자 1인당 아동수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정보육시설 운영자들은 경제적 운영측면에서 볼 때 아동수가 5명을 초과하여 탁아보조자를 1명 채용해야 할 경우의 비용을 상쇄하려면 아동을 3~4명 더 맡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아동수는 초과되지만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취업모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탁아담당자들의 변이었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가정보육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보육아동의 연령범위를 살펴보면, 현재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아만 보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혼합연령으로 혹은 유아만 보육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영아만을 보육하고자 하는 시설은 없었다. 한편 월보육비의 경우에도 지역적인 차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률, 아동의 연령, 외부보조여부 등에 따라 종일제 유아인 경우 월 20만원 까지 차이를 보였다.

두번째로 평정척도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41%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고 47%가 보통수준이었으며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 시설은 12%에 불과하였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탁아담당자 및 부모」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기본공간 및 설비」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시설 간의 차이가 커는데, 특히 「탁아담당자 및 부모」, 「기본양육」, 「언어와 추론」면에서 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적 수준이 높았던 「탁아담당자 및 부모」요소는, 부모와의 연계성, 탁아담당자의 개인적 용무와 양육책임의 조화, 탁아담당자의 전문적인 성장기회를 포함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는 탁아담당자의 환경과 아동의 부모와의 연계성이 탁아의 질적인 측면에서 중시되어야 한다는 Belsky(1984), Travis와 Perreault(1980)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평정척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중간수준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담당자 및 부모」요소는 시설에 따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므로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시설에서는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다. 「언어와 추론」에서도 시설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McCartney와 동료들(1982)의 연구에서 탁아의 전반적인 질이 높더라도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이 낮으면 아동의 부적응을 야기하였으므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언어와 추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있어야겠다.

세째, 가정보육시설에서 관찰된 아동의 행동 중에는 아동의 개별행동이 가장 많았고(56%) 그 종에서도 혼자놀이와 탁아담당자나 친구를 관찰하는 행동이 많았다. 이러한 아동의 행동은 선행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탁아담당자의 자격과 경력, 아동 일인당 탁아담당자의 수, 아동의 연령구성, 아동 일인당 활용면적의 측면과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탁아담당자간의 상호작용행동이 많았는데,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유아-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을 좌우한다고 하는 견해(이영, 김온기, 조미혜, 1990; Holloway & Roichhart-Erickson, 1988;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와 유사한 절과였다. 질적 수준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특히 「기본양육」과 「탁아담당자 및 부모」가 우수할수록 상호작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시설에서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연령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유아를 보육하는 탁아시설의 질적수준을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양육적 측면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의 배경을 살펴 보았을 때 핵가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핵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취업모를 위한 자녀양육방안으로서 탁아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시사해 준다 하겠다. 한편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탁아는 일부 취업모의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의 가족과 아동의 문제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대리 양육경험의 불안정성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점이다.

아동은 안정적인 탁아담당자를 보다 선호했으며 질적으로 우수할 경우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Cummings, 1980), 부모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공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0시간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탁아담당자에 의하면 부모들의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있었다. 탁아담당자의 근무조건이 좋지 않으면 탁아담당자의 만족감과 연결되어 탁아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Webb, 1989). 원칙적으로는 이용시간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는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모와 탁아담당자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탁아담당자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보조자의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타인양육을 시작한 시기는 아동이 1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나, 가정보육시설에는 아동이 2세 이상일 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Floge (198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사회에서나 영아는 조부모, 친척 등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집단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연령이 되면 가정보육시설에 보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정보육시설은 앞으로 양적으로 더욱 확장되리라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인 특성 뿐 아니라 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외에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가정보육시설의 다양한 질적 특성이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가정보육시설이 보다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보육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직접적인 관찰에 소요되는 시간관계로 연구대상 시설의 수가 많지 않았고, 또한 시기적으로 법적 정비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앞으로 곧 새로운 법적 제도가 정착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보육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보다는 추후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옥. (1991). 탁아프로그램의 질적 환경. 양 옥승(편), 탁아연구. 서울 : 양서원.
- 김정자, 임선희. (1984). 가정탁아제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조사연구보고서 200-7.
- 박숙자. (1990). 기혼여성의 취업과 탁아문제. 덕성여대 유아교육 세미나.
- 보건사회부. (1990). 탁아사업 업무 처리 지침.
-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 (1991). 영유아 보육법령집.
- 유명주. (1982). 가정탁아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희정. (1991). 가정탁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 영. (1989). 우리나라 탁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의 권리 : 가정·교육·탁아. 한국 교육학회 유아교육 연구회·한국 아동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움.
- 이 영. (1990). 탁아와 유아 발달. 덕성여대 유아교육 세미나.
- 이영, 김미령. (1990). 발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종일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서울 : 양서원.
- 이영, 김온기, 조미혜. (1991). 개방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아동 및 교사간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1990년도 보고서, 67-92.
- 이영자. (1990). 탁아프로그램의 운영방향. 덕성여대 유아교육 세미나.
- 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1986).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이재연. (1989). 탁아의 유형. 아동의 권리 : 가정·교육·탁아. 한국 교육학회 유아교육 연구회·한국 아동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움.
- 이진주. (1988). 가정탁아 이용실태와 이용자의 요구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부경. (1991). 가정탁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 양옥승(편), 탁아연구. 서울 : 양서원.
- 한국 교육학회 유아교육 연구회. (1990. 9).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서울.
- 한국 교육학회 유아교육 연구회·한국 아동학회. (1989). 아동의 권리 : 가정·교육·탁아. 서울.
- 한국 여성 개발원. (1986). 가정탁아제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 한국 여성 개발원. (1989). 탁아시범사업. 1989 사업보고서 400-14.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전국 탁아 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행동과학연구, 23(3).
- Belsky, J. (1984). Two waves of day care research: Developmental effects and conditions of quality. In R. C. Ainslie(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New York: Praeger.
- Clarke-Stewart, A. (1982). Day ca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Stewart, A., & Gruber, C. P. (1984). Day care forms and features. In R. C. Ainslie(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New York: Praeger.
- Cummings, E. H. (1980).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1-37.
- Endsley, R. C., & Bradbard, M. R. (1981). Quality day ca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Fein, G. G., & Fox, N. (1988). Infant day care: A special issu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27-234.
- Floge, L. (1985). The dynamics of child-care use and some implications for women's employ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43-154.
- Fuqua, R. (1984). Improving program evaluation in day care. In J. T. Greenman & R. W. Fuqua(Eds.), Making day care better: Training, evalu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arms, T., & Clifford, R. M. (1980).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arms, T., & Clifford, R. M. (1989). Family Day Care Rating Scal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3.
- Howes, C., & Stewart, P. (1987). Child's play with adults, toy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child-care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23-430.
- Irwin, D. M., & Bushnell, M. M. (1980). Observational strategies for child stud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n.
- McCartney, K., Scarr, S., Phillips, D., Grajek, S., & Schwarz, J. C. (1982).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 care center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In E. Zigler & E. Gordon(Eds.), Day care: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Auburn House.
- Morrison, G. S. (1980).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2nd ed.). Columbus: A Bell & Howell.
- NAEYC. (1984). Accredit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Early Childhood Programs. New York: NAEYC.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37-543.
- Schomburg, R. M. (1989). Family day care providers: Role perception and implications for train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1989).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 1555A.
- Schwartz, J. I. (1983). Implications from research for infant/toddler group care. Child Care Quarterly, 12(3), 177-198.
- Smith, K. E., & Jaworski, A. P. (1984). Physical environment for toddlers in group care. Child Care Quarterly, 13(1), 52-61.
- Travis, N. E., & Perreault, J. (1980). Day care as a resource to family. In L. G. Katz(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Vol. 3). NJ: Ablex.
- Vandell, D. L., Henderson, V. K., & Wilson, K. S.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with day-care experience of varying quality. Child Development, 59(5), 1286-1292.
- Webb, N. E. C. (1989). Quality of child care centers and commitment of their caregiv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9).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 1556A.
- Zigler, E. F., & Gordon, E. W. (Eds.). (1982). Day care: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Auburn House.